추석 코앞… 사랑나눔 후원 손길이 끊겼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그룹을 운영하는 광주시 북구 A복지관은 좀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절을 앞두고 밀려들던 성금과 위문품이 올해는 뚝 끊겼기 때문이다. 최근 2주간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쌀 20포(10kg)가 전부다.

어느 복지관 20만원 상품권에 쌀 10kg가 전부
대부분 시설찾는 이 없고 전화 문의조차 안해
경기어려움에 관심부족 … 소외계층 체감 추위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의 체감추위가 깊어졌다.

특히 경기 침체까지 겹쳐 기업의 위문 참여도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 단체 등을 찾는 발길도 대폭 줄었다.

또 해마다 명절이면 과일·신발 등 익명의 기부를 해오던 이들도 올핸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0일 광주시내 주요 사회복지시설 등에 따르면 해마다 명절이면 평균 수백 만 원씩 들어오던 후원금이 이번 추석엔 뚝 끊겼다.

평균 30% 이상 줄었다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광주 B장애인복지관엔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후원의 손길이 뚝 끊겼다.

지난해만 해도 명절이 가까워 오면 후원금 기탁과 관련한 문의전화들이 오고 실제 후원으로도 이어졌지만 올해는 문의전화조차 거의 없다.

광주 C아동시설은 정기 후원자들이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지만 비정기 후원자는 거의 사라졌다. 물품 후원은 더욱 줄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면 간신창고가 가득 찰 정도였으나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곳간이 텅 빌 정도라는 것이다.

C아동시설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추석을 전후로 20여 명의 독지가들이 시설을 찾아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선물도 증정했지만 올해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다"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미처 사회복지시설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금전문기관의 사정도 예년 같지 않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추석 특별모금기간으로 정한 뒤 기업·후원자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재 모금된 성금은 1억8700만 원으로 지난해 2억6000만 원보다 7300만 원(18.1%) 줄었다.

지난 설 명절 때까지만 해도 기업에서 물품 기부를 많이 했으나 이번 추석땐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의 설명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 구는 후원·기부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올핸 유독 기부 관련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게 각 구 담당 공무원들이 공통된 견해다.

특히 해마다 명절이면 과일·신발·쌀·옷 등 시가 300만 원 이상 기부를 꾸준히 해오던 기부천사들도 연락을 뚝 끊었다. 구청에선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 안부를 묻고 싶지만 혹여 누만 끼칠까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예년 이맘 때면 기부하겠다는 전화가 매일 서 너 통씩은 있었는데, 올핸 아예 자취를 감췄다.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경제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와 노인들을 헤아리는 온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성인들도 특정 감염병에 취약

새 학기를 앞두고 자녀의 예방접종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들이 많지만, 부모 자신도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30대 건강한 성인들도 특정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A형간염 환자의 70%는 20~30대였다. 젊은이들이 A형 간염에 취약한 이유는 지나치게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어린 시기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생관리가 어려운 해외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유학을 준비 중인 젊은 성인이라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암 발생비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률도 9%에 이른다. 백신을 접종하면 자궁경부암의 80~90%를 예방할 수 있다.

파상풍은 긁히거나 상처가 날 경우 파상풍균이 근육을 마비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유년기에 실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면역력이 떨어져 10년 주기로 재접종이 필요하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역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유아기에 걸린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다가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재활성화되는 질환이다. 신체 한쪽 부위의 피부에 심한 통증과 물집을 형성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폐렴구균으로 인해 균혈증이 생길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이 생길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른다.

하지만, 65세 이상 연령의 국내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15%로 낮은 수준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입 벌리면 '딱' 소리… 턱관절 장애 늘고 있다

최근 4년새 43% ↑… 10·20대 젊은층 절반 차지
전문가들 "스트레스·감수성 등 정신적 요인" 탓

#1. 대학생 이모씨는 갑자기 귀 밑 턱 부분이 아파 입을 2cm 이상 벌리는 것이 힘들어졌다. 입에 숟가락도 넣지 못해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던 이씨는 병원을 찾았고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진통제를 먹으며 경과를 지켜본 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는 이씨에게 턱을 괴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같은 질환이 생겼다며 성장기 자세를 교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턱 관절 이상 4년 새 43% 증가= 턱 관절에 문제가 생겨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거나 벌릴 때마다 '딱' 소리가 나는 환자들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악물거나 턱을 괴는 등의 습관과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턱관절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빨리 치료해야한다.

26일 건강보험공단 진료통계에 따르면 턱 관절 장애(질병 코드 K07.6)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8년 20만4995명에서 2012년 29만2363명으로 4년간 42.6%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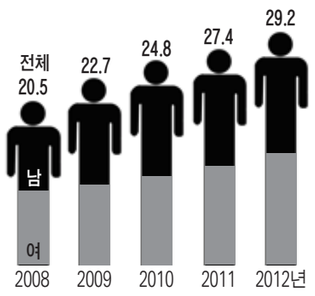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도 135억 원에서 1.5배인 203억 원으로 급증했다. 성별로는 작년 기준 여성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716명으로 남성(463명)의 1.5배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만 명당 1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915명), 30대(617명), 70대(444명) 등의 순이었다. 결국, 10~20대 젊은층이 전체 턱 관절 환자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령 분포에 대해 "청소년기는 아래턱뼈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데다 스트레스, 예민한 감수성 등 여러 정신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턱 관절은 양쪽 귀 앞쪽에 있는 관절원판(디스크)과 이와 연결된 뼈를 말하며, 이 관절 덕분에 음식물을 씹거나 말할 때 아래턱을 움직일 수 있다.

■ 턱관절 이상 환자 증가 추이(단위:만명)



턱 관절 장애는 이 관절 구조 자체나 관절을 둘러싼 저작근 등 근육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다. 턱 관절이 정상이 아닌 경우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아프거나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심하면 입이 충분히 벌어지지 않게 된다.

◇턱 관절 장애 치료=턱 관절 치료는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환 자체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치료법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진단은 환자에 대한 임상검사, 영상진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통증 정도·부위·시기 등을 파악한다. 또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관절음·개구장애 등 기능적 이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관절 원판(디스크)의 병적 소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기공명영상(MRI)이 추천된다.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부위의 일시적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등 약물요법을 병용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한 초등학생이 병원에서 '턱관절 장애' 진료를 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예방접종 받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학한 학교에 일부 학생들이 눈병·홍역 등 전염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역·볼거리·수두 등 전염병은 최근 물놀이를 다녀온 피서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결막염 바이러스와 함께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학년별 예방접종 스케줄을 공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6세 어린이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MMR 2차,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4차 등 예방접종 내역을 입학 때 확인하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거친다.

초등학교 입학생(만 6~7세)은 대부분 추가접종 4가지를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일부 미접종한 학생들이 있어 빠진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만 11~12세)은 T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 (5차)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중·고등학교에 올라 간 학생의 경우도 만약 빠진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아주 경미하며, 또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 : //nip.cdc.go.kr) 사이트와 예방접종 스마트폰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 학기 초·중·고교생 전염병 비상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고미술품 전문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36-6번지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062)232-4784

큰솥단지
동구 불로동 107-4번지
돌솥설렁탕, 돌솥갈비탕
돌솥우거지탕, 생고기전문
☎(062)222-6427

백운보석사우나헬스
남구 진월동 312-1번지 롯데수퍼옆
헬스·사우나 24시간 영업
☎(062)651-4140

조선한정식
농성동 새마을금고 연합회옆
프리미엄 전라도식 핸드 메이드
"루시아" 김치 전문점
☎(062)365-6822

장흥한우촌
신안동 262-1번지 빛고을 찜질방 주차장앞
고기류, 식사류
후식류, 주류등
☎(062)528-4209

안경매니져(봉선점)
남구 봉선로152번지 현대자동차봉선지점옆
안경테,선글라스
콘텍트렌즈 특가
☎(062)675-0500

대림당한약방
학1동 29-4번지 남광주사거리
친절하게 하는 전통한의사
☎(062)227-4097

불로가물치
동구 서석동 42-6번지 동구청후문골목
가물치곰탕, 가물치 회·즙·특찜(예약)닭백숙
대표 최광열
☎(062)226-1991

해물명가청해진
월계동 892-3번지 첨단지구대골목 풍천장어앞
아구찜,꽃게찜탕,조개찜,해물탕찜
점심시간:해물칼국수,해물뚝배기,낙지비빔밥
☎(062)974-4444

이건마루인테리어
화정동 723-12번지 벧엘교회옆
건축자재, 인테리어전문
대표 김진환
☎(062)433-6685

원조왕자관
동구 충장로1가 101-6번지 YMCA옆
원조 왕자관 美食 중화요리전문
☎(062)234-4096

맛집한겨레
궁동 56-2번지 가톨릭센터뒷편 수미온천장옆
한방오리백숙,오리훈제
육계장,오리탕,돌솥비빔밥등
☎(062)222-0132

우리옷빛고을
궁동 62-3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벽면
=우리옷 한복 전문점
☎(062)227-6730

황금가마골소머리국밥
우산동 4-2번지 광주병원 신관 가나의료기옆
소머리국밥
수육곱창전골전문
☎(062)572-7272

김용만의 국수집
충장로1가 YMCA1층
옛날국수 전문점. 모든 메뉴 포장가능
☎(062)236-3533

삼보컴퓨터첨단점
월계동 835-1 월계초등학교에서 방통대사이
모든 컴퓨터 수리 전문점
대표 김경모
☎(062)972-3512

드림종합건설
광산구 쌍암동 694-45번지 3층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근공사업
시설물유지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062)971-7054

꽃과사람들
동구 대의동 전일빌딩뒷편
꽃다발, 꽃바구니, 동서양란
관엽, 근조, 화환등 모든 것
대표 박경자
☎(010)8473-0057

퍼스트네팔(충장로점)
동구 불로동 109-5번지 2층
네팔, 인도 커리스토리 , 레스토랑
☎(062)225-8771

정열식당
동구 금동 15-2번지
갈비찜,갈치조림,생선구이,각종탕,꽃게무침
대표 노수연
☎(062)233-7979

홍서각
동구 궁동 14-1번지(중앙초등학교정문앞)
고급표구제작,그림판매, 동양화,표구전문
고(古) 미술품전당포
☎(062)236-3259

커피홀릭
충장로3가11번지 이프유정문건너편2층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웨버하우스
동구 광산동 78-1번지 안산빌딩 8층
즉석 바베큐, 레스토랑, 샐러드바
☎(062)226-0003